

TRADE BRIEF

2022.07.22 No.13

ISSN 2093-3118



미·중 하이테크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수출 동향 및 시사점

동향분석실

김민우 수석연구원
02-6000-5169, m.kim@kita.or.kr

‘제조시 R&D 비중이 높은 제품’으로 정의되는 하이테크 품목은, 세계교역액의 약 20%를 차지하며 최근 10년 세계교역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은 총수출액의 1/3이 하이테크 품목으로 수출액 기준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2대 하이테크 품목 수입국은 중국·미국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10년간 2위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 1위 대만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중 분쟁 이후 중국이 대만과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함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 품목에서 대만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하이테크 수입 시장에서 한국은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중 분쟁에 따른 중국의 점유율 하락 이후 한국을 비롯한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향후에도 하이테크 수출강국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전·후방 공정에서 경쟁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의약품·항공우주 등 신성장 산업에서의 수출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 완화, 전문 인재양성 지원, 기업 차원에서는 과감한 연구개발·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

I • 세계 하이테크 품목 교역시장 동향

◎ (정의) 하이테크 품목은 '제조시 R&D 비중이 높은 기술제품'

- OECD에서 제시한 정의로, 세부품목은 아래 9개로 분류(상세 품목코드 등은 부록 참고)

No.	품목명	세부품목 예시
1	항공우주 Aerospace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 장비
2	컴퓨터·사무기기 Computers & Office Machines	컴퓨터, 복합기 등 주변장치 및 부품
3	전자통신기기 Electronics-Telecommunications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유선통신기기
4	의약품 Pharmacy	의약품, 약제제품
5	과학기기 Scientific Instruments	광학기기, 치과기기, 카메라
6	전기기기 Electrical Machinery	축전기, 입자가속기, 경보기
7	화학품 Chemistry	규소, 칼슘, 방사선 및 관련물질
8	비전기기기 Non-electrical Machinery	가스터빈, 원자로 및 관련부품
9	무기류 Armament	군수품 및 관련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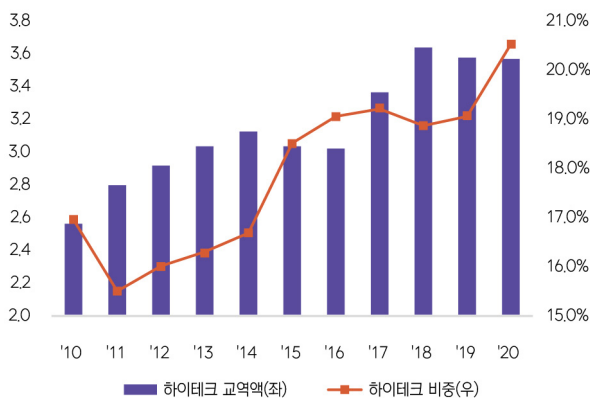
* High-tech aggregation by SITC Rev.4, Eurostat(2020)

◎ (규모) 하이테크 품목은 세계교역(수입액 기준)의 1/5을 차지하며, 최근 10년간 여타품목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

- 전세계 교역액 17.4조 달러 중 하이테크 품목 교역액은 3.6조 달러로 20.5% 차지(2020년 기준)
- 하이테크 품목 교역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4%로 꾸준히 성장(2010~2020년 기준)
 - 동 기간, 非하이테크 품목의 교역은 연평균 1.0% 속도에 불과(총교역은 연평균 1.4%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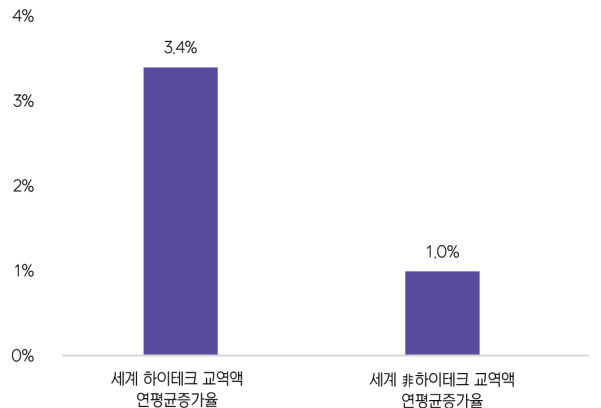
〈세계 하이테크 교역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조 달러, %)



〈교역액 연평균증가율(10~20)〉

(단위 : %)



주 : 교역액은 수입액 기준
 주 : 미신고 국가가 존재하여 '21년 세계 하이테크 총수입액은 집계 불가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10대 수출국) 최대수출국은 중국, 뒤를 이어 홍콩·미국·대만·독일·한국 순

- 중국이 전세계 하이테크 수출의 23.6%를 차지하는 1위 국가이며, 뒤를 이어 홍콩(10.6%), 미국(7.3%), 대만(6.1%), 독일(5.9%), 한국(5.3%) 순
- 한국은 5.3% 점유율로 6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10년 꾸준히 5~6%의 세계점유율 및 5~6위를 기록 중
- 신흥 하이테크 수출국으로 대만(5.3%→6.1%) 베트남(0.3%→3.2%) 부상 중
 - 반면, 미국(9.5%→7.3%), 일본(5.8%→3.3%)은 수출 점유율 하락 추세

〈세계 하이테크 수출: 국가별 비중 및 순위〉

(단위 : %)

순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1	중국(20.6)	중국(22.6)	중국(23.3)	중국(22.2)	중국(22.5)	중국(23.6)
2	미국(9.5)	미국(9.2)	홍콩(9.0)	홍콩(10.2)	홍콩(10.3)	홍콩(10.6)
3	홍콩(8.0)	홍콩(8.4)	미국(8.9)	미국(9.1)	미국(7.8)	미국(7.3)
4	독일(7.1)	독일(7.2)	독일(7.1)	독일(7.0)	독일(6.7)	대만(6.1)
5	한국(5.9)	싱가포르(5.2)	한국(5.4)	한국(5.2)	한국(6.1)	독일(5.9)
6	일본(5.8)	한국(5.1)	싱가포르(5.1)	대만(5.1)	대만(5.0)	한국(5.3)
7	싱가포르(5.7)	일본(5.0)	대만(5.0)	싱가포르(5.0)	싱가포르(4.7)	싱가포르(4.9)
8	대만(5.3)	대만(4.8)	프랑스(4.2)	프랑스(4.0)	프랑스(3.6)	일본(3.3)
9	프랑스(4.5)	프랑스(4.3)	일본(3.9)	일본(3.8)	일본(3.6)	베트남(3.2)
10	네덜란드(3.3)	네덜란드(3.0)	네덜란드(3.0)	네덜란드(2.6)	말레이시아(2.8)	말레이시아(2.8)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10대 수입국) 하이테크 2대 수입국은 중국과 미국으로, 세계 하이테크 교역액 1/3 차지

- 중국과 미국은 각각 세계 하이테크 수입의 18.5%, 13.5%를 차지하는 2대 수입국(양국 점유율 32.0%)
- 국가별 수입액 비중·순위가 장기간 안정적인 구조로, 향후에도 중국과 미국이 빅2 하이테크 수입시장의 위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세계 하이테크 수입: 국가별 비중 및 순위〉

(단위 : %)

순위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1	중국(16.0)	중국(17.4)	중국(17.6)	중국(17.2)	중국(17.9)	중국(18.5)
2	미국(13.4)	미국(13.5)	미국(13.6)	미국(14.4)	미국(13.6)	미국(13.5)
3	홍콩(8.0)	홍콩(8.6)	홍콩(9.2)	홍콩(10.0)	홍콩(10.1)	홍콩(10.1)
4	독일(6.2)	독일(5.4)	독일(5.5)	독일(5.2)	독일(5.0)	독일(4.8)
5	일본(4.3)	일본(4.4)	일본(4.1)	일본(3.8)	일본(3.7)	싱가포르(3.9)
6	싱가포르(4.0)	싱가포르(3.7)	싱가포르(3.5)	싱가포르(3.4)	싱가포르(3.6)	일본(3.5)
7	프랑스(3.4)	프랑스(3.3)	영국(3.3)	영국(3.3)	한국(2.9)	한국(3.1)
8	영국(3.3)	영국(2.9)	프랑스(3.1)	한국(3.0)	영국(2.8)	대만(3.1)
9	한국(2.9)	네덜란드(2.8)	한국(2.8)	프랑스(2.8)	대만(2.5)	네덜란드(2.6)
10	네덜란드(2.9)	한국(2.8)	네덜란드(2.7)	멕시코(2.7)	네덜란드(2.5)	베트남(2.6)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품목별) '전자통신기기'가 교역 규모 및 성장세에서 1위

- 9개 하이테크 품목 중 '전자통신기기'의 교역액(수입액 기준)이 1.8조 달러로 절반 이상(55.6%)을 차지했고 (2020년 기준), 연평균 증가세도 4.6%로 가장 높아 하이테크의 핵심 품목
 - 전자통신기기 세부품목은 반도체(30.9%), 통신기기(21.0%), 기타(3.7%)로 구성
- 다음으로 컴퓨터·사무기기, 과학기기, 항공우주 순(2020년 기준)
 - 성장세 측면에서는 의약품, 무기류, 전기기기가 각각 2·3·4위를 기록

〈세계 하이테크 교역액: 품목별 비중 추이〉

(단위 : %)

품목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전자통신기기	49.6	49.6	51.0	53.2	53.8	55.6
반도체	25.2	23.0	24.3	26.0	28.1	30.9
통신기기	20.8	22.2	22.5	23.2	21.8	21.0
기타	3.6	4.4	4.2	4.0	3.9	3.7
컴퓨터·사무기기	18.7	17.7	16.2	14.5	15.0	15.8
과학기기	13.0	13.2	12.6	12.2	11.6	11.2
항공우주	6.6	7.6	8.5	9.0	8.3	5.8
의약품	4.2	4.1	4.3	4.1	4.0	4.6
전기기기	2.9	2.8	2.8	2.7	2.9	2.8
화학품	2.8	2.6	2.6	2.3	2.5	2.4
비전기기기	1.8	2.0	1.8	1.7	1.7	1.4
무기류	0.4	0.4	0.3	0.4	0.3	0.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품목별 연평균증가율(10~20)〉

(단위 : %)

품목	연평균증가율
전자통신기기	4.6
반도체	5.5
통신기기	3.5
기타	3.8
의약품	4.4
무기류	3.9
전기기기	2.9
항공우주	2.1
과학기기	1.9
화학품	1.9
컴퓨터·사무기기	1.6
비전기기기	0.2
(하이테크 평균)	3.4

주 : 2020년 비중 기준 내림차순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주 :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기준 내림차순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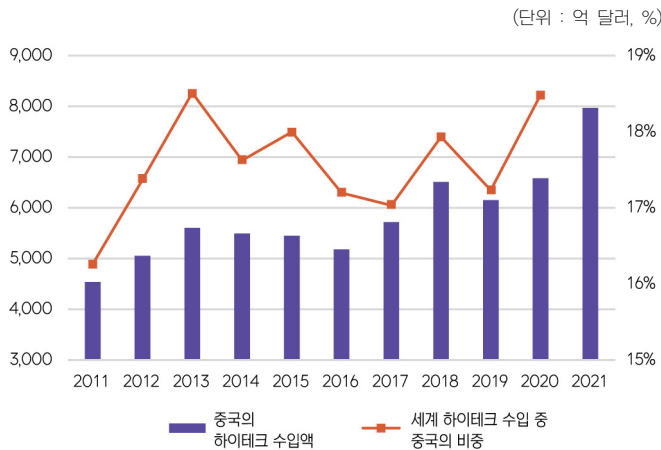
II • 주요국 하이테크 수입시장 동향

1. 중국

◎ (규모) 중국은 세계 1위 하이테크 수입국가로 세계 수입시장의 18.5% 차지(2020년 기준)

- 2021년 수입액 규모는 7,969억 달러이며, 최근 10년간 수입액이 꾸준히 증가

〈중국 하이테크 수입액 및 세계시장에서의 비중〉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중국의 하이테크 수입액(표)〉

연도	중국 하이테크 수입액	세계 하이테크 수입액	중국 비중
2011	4,538	27,908	16.3
2012	5,054	29,099	17.4
2013	5,603	30,269	18.5
2014	5,493	31,165	17.6
2015	5,450	30,280	18.0
2016	5,181	30,131	17.2
2017	5,718	33,575	17.0
2018	6,513	36,321	17.9
2019	6,153	35,706	17.2
2020	6,581	35,605	18.5
2021	7,969	—	—

주 : 미신고 국가가 존재하여 '21년 세계 하이테크 총수입액은 집계 불가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국가별) 대만·한국이 각각 1·2위이나, 2018년 이후 양국 격차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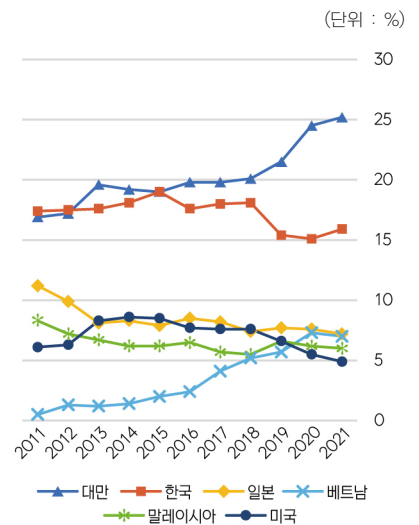
- 2013년부터 대만 1위, 한국 2위 구조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 점유율 격차 확대(1.8%p(17)→9.3%p(21))
- 일본(11.2%→7.2%)과 미국(6.1%→4.9%)의 점유율이 하락한 반면, 베트남은 빠르게 상승(0.5%→7.0%)

〈중국 하이테크 수입시장 주요 수출국 순위·점유율〉

순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1	한국 (17.4)	대만 (19.6)	대만 (19.0)	대만 (19.8)	대만 (21.5)	대만 (25.2)
2	대만 (16.9)	한국 (17.6)	한국 (19.0)	한국 (18.0)	한국 (15.4)	한국 (15.9)
3	일본 (11.2)	미국 (8.3)	미국 (8.5)	일본 (8.2)	일본 (7.7)	일본 (7.2)
4	말레이시아 (8.3)	일본 (8.1)	일본 (7.9)	미국 (7.6)	말레이시아 (6.6)	베트남 (7.0)
5	미국 (6.1)	말레이시아 (6.7)	말레이시아 (6.2)	말레이시아 (5.7)	미국 (6.6)	말레이시아 (6.0)
6	태국 (3.7)	독일 (3.2)	독일 (3.1)	베트남 (4.1)	베트남 (5.7)	미국 (4.9)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주요국 점유율 추이〉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품목별) '전자통신기기'의 수입 비중이 매우 높아 한국 하이테크 수출구조와 유사

- 전자통신기기(71.8%)에 크게 편중된 수입구조로, 과학기기(11.5%) 컴퓨터·사무기기(8.7%) 가 뒤를 이음
- 한국 하이테크 수출구조(전자통신기기 : 과학기기 : 컴퓨터·사무기기 = 78.3 : 9.2 : 7.5)와 유사
- 수입 증가세 면에서는 의약품(13.1%)과 전자통신기기 하위품목인 반도체(9.0%)가 가장 빠르게 증가

〈중국 하이테크 수입액: 품목별 비중 추이〉

(단위 : %)

품목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전자통신기기	58.9	63.7	64.7	66.6	67.9	71.8
반도체	43.8	47.0	48.3	51.0	54.4	58.9
통신기기	11.1	13.1	13.0	12.4	10.4	10.2
기타	4.0	3.5	3.4	3.3	3.1	2.7
과학기기	20.4	17.6	16.5	15.1	13.7	11.5
컴퓨터·사무기기	10.7	8.6	8.1	7.4	8.4	8.7
전기기기	3.1	2.9	2.8	2.5	2.7	2.6
항공우주	3.3	4.5	5.2	5.1	3.9	2.1
의약품	0.8	0.9	1.0	1.2	1.6	1.6
화학품	1.8	1.1	1.2	1.2	1.0	1.0
비전기기기	1.1	0.8	0.6	1.0	0.8	0.6
무기류	0.0	0.0	0.0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2021년 비중 기준 내림차순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품목별 연평균증가율('11~'21)〉

(단위 : %)

품목	연평균증가율
의약품	13.1
전자통신기기	7.9
반도체	9.0
통신기기	4.9
기타	1.6
전기기기	4.2
컴퓨터·사무기기	3.6
항공우주	1.4
화학품	0.0
과학기기	-0.1
무기류	-0.2
비전기기기	-0.4
(하이테크 평균)	5.8

주 :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기준 내림차순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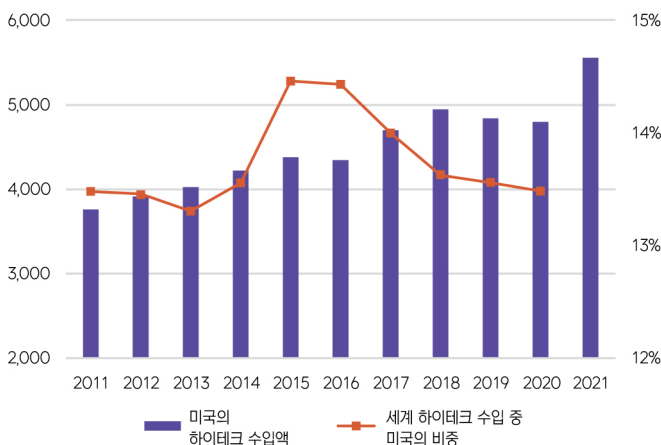
2. 미국

◎ (규모) 미국은 세계 2위 하이테크 수입국가로 전체 시장의 13.5% 차지(2020년 기준)

- 2021년 수입액 규모는 5,562억 달러로, 시장규모가 꾸준히 성장 중이나 세계 비중은 최근 하락세

〈미국 하이테크 수입액 및 세계시장에서의 비중〉

(단위 : 억 달러, %)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미국의 하이테크 수입액(표)〉

(단위 : 억 달러, %)

연도	미국 하이테크 수입액	세계 하이테크 수입액	미국 비중
2011	3,763	27,908	13.5
2012	3,917	29,099	13.5
2013	4,028	30,269	13.3
2014	4,225	31,165	13.6
2015	4,380	30,280	14.5
2016	4,349	30,131	14.4
2017	4,701	33,575	14.0
2018	4,949	36,321	13.6
2019	4,841	35,706	13.6
2020	4,802	35,605	13.5
2021	5,562	—	—

주 : 미신고 국가가 존재하여 '21년 세계 하이테크 총수입액은 집계 불가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국가별) 중국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2018년 이후 점유율 하락세

- 중국은 부동의 對美 1위 수출국이나, 2018년을 기점으로 점유율 급락(2017년 38.9% → 2021년 29.8%)
- 2018년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 수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한국은 점유율 4.2%로 6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10년간 3~4%대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
-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베트남(27위→4위) 및 말레이시아(8위→5위)가 주요 대미 수출국으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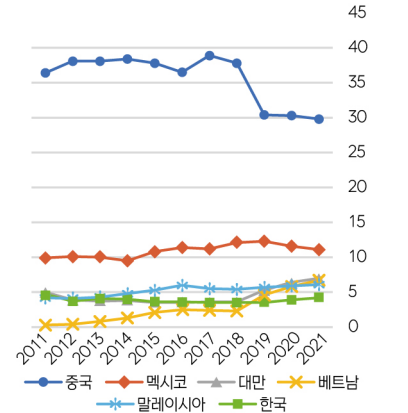
〈미국 하이테크 수입시장 주요 수출국 순위·점유율〉

(단위 : %)

순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1	중국 (36.4)	중국 (38.1)	중국 (37.8)	중국 (38.9)	중국 (30.4)	중국 (29.8)
2	멕시코 (9.9)	멕시코 (10.0)	멕시코 (10.8)	멕시코 (11.2)	멕시코 (12.3)	멕시코 (11.1)
3	일본 (5.5)	독일 (5.2)	독일 (5.5)	말레이시아 (5.5)	말레이시아 (5.7)	대만 (7.0)
4	대만 (5.0)	일본 (4.8)	말레이시아 (5.3)	독일 (4.5)	대만 (5.3)	베트남 (6.7)
5	한국 (4.7)	캐나다 (4.4)	캐나다 (4.5)	캐나다 (3.9)	베트남 (4.6)	말레이시아 (6.1)
6	독일 (4.7)	말레이시아 (4.3)	일본 (4.1)	일본 (3.8)	독일 (4.4)	한국 (4.2)

〈주요국 점유율 추이〉

(단위 : %)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주 : 한국의 해당기간 (순위/점유율%) : (5/4.7)→(7/4.1)→(7/3.6)→(8/3.5)→(10/3.5)→(6/4.2)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품목별) 중국에 비해 품목별 수입이 고르게 분포하며, 의약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 중

- 최대 수입품목인 전자통신기기(41.7%)를 포함하여 전체 하이테크 품목의 수입구조가 고른 편
- 전자통신기기 다음으로 컴퓨터·사무기기(27.5%), 과학기기(11.2%), 의약품(6.3%) 순
- 또한 '의약품'과 '전기기기'가 연평균 5.9%의 성장률로 가장 빠르게 시장규모 확대

〈미국 하이테크 수입액: 품목별 비중 추이〉

(단위 : %)

품목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전자통신기기	40.5	42.0	43.2	44.5	41.0	41.7
반도체	10.8	10.4	10.6	11.5	11.3	12.7
통신기기	26.7	28.0	29.0	29.5	26.0	25.5
기타	3.0	3.6	3.5	3.5	3.7	3.5
컴퓨터·사무기기	27.8	26.3	24.2	24.2	24.0	27.5
과학기기	11.7	11.6	11.3	11.5	12.1	11.2
의약품	5.3	4.6	5.5	4.9	6.5	6.3
항공우주	6.8	8.2	9.2	7.9	9.4	5.9
전기기기	2.9	2.5	2.9	3.2	3.3	3.4
화학품	2.5	1.8	1.4	1.5	1.5	1.7
비전기기기	1.8	1.8	1.6	1.6	1.4	1.2
무기류	0.9	1.1	0.7	0.7	0.7	1.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2021년 비중 기준 내림차순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품목별 연평균증가율('11~'21)〉

(단위 : %)

품목	연평균증가율
의약품	5.9
전기기기	5.9
무기류	5.5
전자통신기기	4.3
반도체	5.7
통신기기	3.5
기타	5.7
컴퓨터·사무기기	3.9
과학기기	3.6
항공우주	2.6
화학품	-0.1
비전기기기	-0.3
(하이테크 평균)	4.0

주 :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기준 내림차순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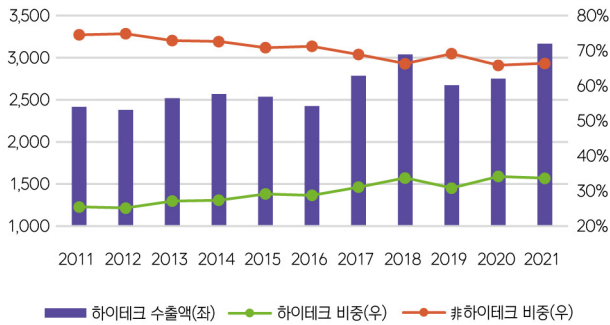
III • 한국 하이테크 품목 수출 동향

◎ (규모) 하이테크 품목은 총수출의 1/3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여타품목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수출 성장세를 주도

- 한국의 하이테크 수출은 2,167억 달러로, 전체 한국 수출액의 33.6% 차지(2021년 기준)
- 지난 10년간 하이테크 수출은 연평균 4.4% 성장하며 한국 수출을 견인(2011~2021년 기준)
 - 동 기간 非하이테크 수출은 연평균 0.3% 증가하며 정체(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

〈한국 하이테크 수출액 및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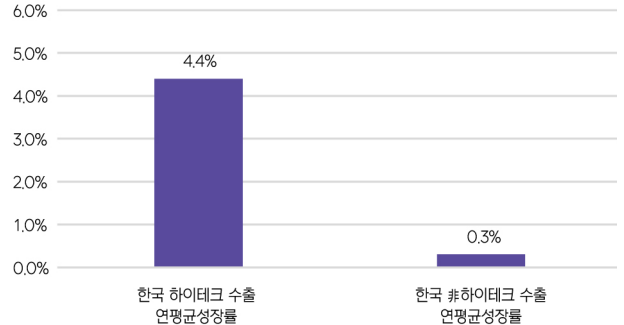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한국 하이테크 수출의 연평균성장률('11~'21)〉

(단위 : %)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국가별) 한국의 하이테크 수출 대상국은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홍콩·대만 등 중화권 비중이 과반을 차지

- 2021년 기준, 한국의 하이테크 수출의 80.9%가 아시아向이며, 56.0%가 중화권(중국+홍콩+대만)
- 최근 10년 사이 베트남이 한국의 주요 하이테크 수출대상국으로 부상(2011년 8위 → 2021년 2위)

〈한국 하이테크 수출대상국별 순위 및 비중〉

(단위 : %)

순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1	중국 (36.5)	중국 (39.1)	중국 (41.7)	중국 (38.0)	중국 (37.0)	중국 (36.3)
2	홍콩 (11.2)	홍콩 (11.4)	홍콩 (13.2)	홍콩 (17.1)	베트남 (15.5)	베트남 (15.6)
3	미국 (11.0)	미국 (9.4)	미국 (9.2)	베트남 (11.5)	홍콩 (14.7)	홍콩 (13.9)
4	일본 (5.6)	베트남 (5.2)	베트남 (6.9)	미국 (8.6)	미국 (9.1)	미국 (10.0)
5	대만 (5.0)	싱가포르 (4.2)	대만 (3.0)	대만 (3.0)	대만 (3.2)	대만 (5.8)
6	싱가포르 (4.0)	일본 (4.0)	싱가포르 (3.0)	필리핀 (2.9)	일본 (2.2)	싱가포르 (2.2)
7	멕시코 (3.1)	대만 (3.4)	일본 (2.9)	일본 (2.1)	필리핀 (2.1)	필리핀 (2.0)
8	베트남 (2.1)	멕시코 (2.7)	멕시코 (2.6)	싱가포르 (2.1)	싱가포르 (1.7)	일본 (1.8)
9	폴란드 (1.9)	브라질 (2.6)	필리핀 (2.3)	멕시코 (1.7)	인도 (1.6)	독일 (1.2)
10	브라질 (1.9)	필리핀 (1.9)	인도 (1.6)	인도 (1.6)	멕시코 (1.4)	인도 (1.1)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품목별) 전자통신기기 수출 비중이 78.3%로 압도적으로 높고, 뒤를 이어 과학기기(9.2%), 컴퓨터·사무기기(7.5%) 순

- 반도체 수출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전자통신기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11 61.9% → '21 78.3%)
- 전자통신기기의 연평균 수출증가세(4.9%)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약품(4.1%), 무기류(3.6%) 순
- 전자통신기기 세부품목인 반도체(5.8%), 통신기기(4.1%) 모두 빠른 속도로 성장(2011~2021년 기준)

〈한국 하이테크 수출액 : 품목별 비중 추이〉

(단위 : %)

품목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전자통신기기	61.9	63.7	66.9	71.0	75.3	78.3
반도체	33.0	35.2	37.8	52.0	53.3	58.8
통신기기	25.5	23.4	25.0	14.8	17.7	15.8
기타	3.4	5.0	4.0	4.2	4.2	3.8
과학기기	24.6	22.3	19.9	15.0	11.3	9.2
컴퓨터·사무기기	6.3	5.9	6.7	8.0	7.6	7.5
전기기기	3.2	4.7	3.1	1.4	1.7	1.5
화학품	2.0	1.1	1.4	1.9	1.7	1.4
항공우주	0.4	0.7	0.3	0.8	0.6	0.3
비전기기기	0.9	0.8	0.9	0.9	0.8	0.7
의약품	0.5	0.5	0.5	0.5	0.6	0.6
무기류	0.2	0.3	0.3	0.4	0.4	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품목별 연평균증가율('11~'21)〉

(단위 : %)

품목	연평균증가율
전자통신기기	4.9
반도체	5.8
통신기기	4.1
기타	3.4
의약품	4.1
무기류	3.6
전기기기	3.2
화학품	2.5
항공우주	2.0
과학기기	1.4
컴퓨터·사무기기	1.2
비전기기기	0.2
(하이테크 평균)	4.4

주 : 2021년 비중 기준 내림차순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주 : 품목별 연평균증가율 기준 내림차순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수출기여율) 하이테크 수출은 한국수출 성장에 31.5% 기여하고 있으며(2021년 기준), 특히 '반도체' 및 '통신기기'가 하이테크 수출기여분의 대부분을 차지(두 품목 합계 27.5%)

〈한국 하이테크 품목별 수출기여율〉

(단위 : %)

품목	2013	2015	2017	2019	2021
전자통신기기	108.9	-3.9	34.1	36.6	28.2
반도체	49.4	-1.3	43.4	46.1	22.3
통신기기	47.2	-3.4	-10.8	-9.9	5.2
기타	12.3	0.8	1.5	0.3	0.8
과학기기	7.2	-0.2	6.5	9.2	1.5
컴퓨터·사무기기	-0.4	0.2	1.6	0.8	0.3
전기기기	14.9	3.0	0.4	0.0	0.3
화학품	-16.4	7.3	1.6	11.0	1.3
항공우주	-0.7	0.0	0.7	0.1	0.1
비전기기기	0.3	-0.1	0.1	-0.1	0.3
의약품	3.9	0.6	1.0	0.7	-0.5
무기류	0.7	0.0	0.1	0.2	0.0
하이테크 합계	118.4	6.9	46.1	58.5	31.5
(총수출 증가율)	2.1	-8.0	15.8	-10.4	25.7

주 : (수출기여율) = (전년대비 품목별 수출액 증감) / (전년대비 총수출액 증감)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 주력품목 동향 (반도체·통신기기) 】

(1) 반도체

- 대만에 이어 2위를 장기간 유지중이나, 1위 대만과의 점유율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미·중 통상분쟁 이후 중국의 대만과의 공급망 연계 강화 및 대만 TSMC 매출확대에 기인
 - 한국을 비롯한 말레이시아, 일본 등 주요국 비중이 동반 하락
- * 해당 기간 對中 반도체 수출액은 증가세 시현(60억불(15) → 84억불(18) → 90억불(21))

〈중국 반도체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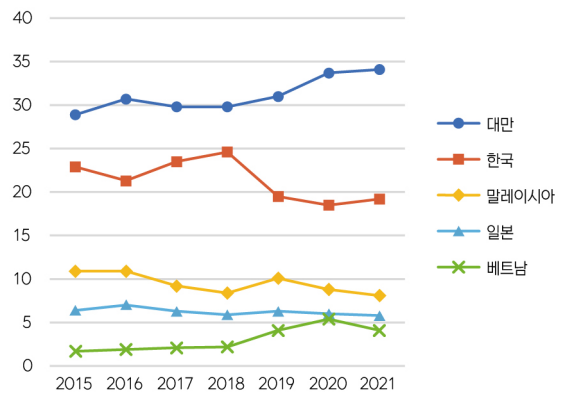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2015	2017	2019	2021
1	대만 (28.9)	대만 (29.8)	대만 (31.0)	대만 (34.1)
2	한국 (22.9)	한국 (23.5)	한국 (19.5)	한국 (19.2)
3	말레이시아 (10.9)	말레이시아 (9.2)	말레이시아 (10.1)	말레이시아 (8.1)
4	일본 (6.4)	일본 (6.3)	일본 (6.3)	일본 (5.8)
5	미국 (5.0)	미국 (3.8)	미국 (4.3)	베트남 (4.1)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주요국 점유율 추이〉

(단위 : %)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2) 통신기기

- 각국의 중국→베트남 생산기지 이전으로 2017년부터 베트남이 한국을 크게 역전
 - * 베트남은 한국기업의 무선통신기기 주요 생산지로(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의 50~60%가 베트남産), 이를 한국의 통신기기 수출경쟁력 약화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중국 통신기기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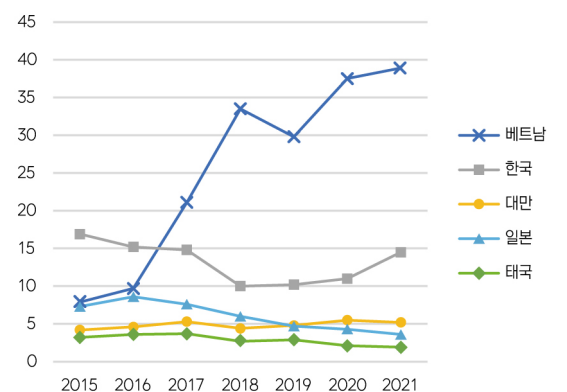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2015	2017	2019	2021
1	한국 (16.9)	베트남 (21.1)	베트남 (29.8)	베트남 (38.9)
2	베트남 (7.9)	한국 (14.8)	한국 (10.2)	한국 (14.5)
3	일본 (7.3)	일본 (7.6)	대만 (4.8)	대만 (5.2)
4	대만 (4.2)	대만 (5.3)	일본 (4.7)	일본 (3.6)
5	태국 (3.2)	태국 (3.7)	태국 (2.9)	태국 (1.9)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주요국 점유율 추이〉

(단위 : %)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주력품목 동향 (반도체·통신기기) 】

(1) 반도체

- 2017년 이후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 급락으로 생긴 틈새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
 - 중국 점유율이 급락한 기간 동안의 주요국 점유율 변화(2017→2021) : (중국) 17.9%→5.6% (한국) 7.2%→12.4% (말레이시아) 28.9%→33.2% (대만) 10.2%→13.6%
 - '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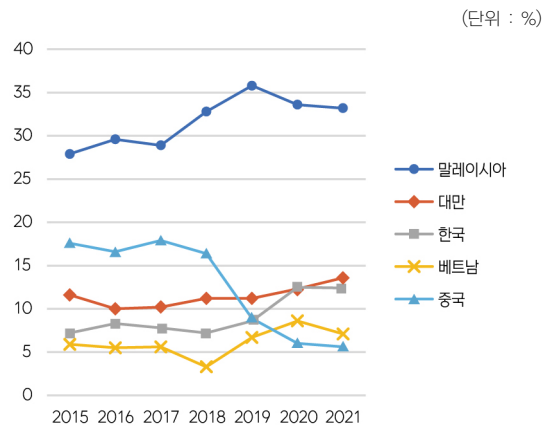
〈미국 반도체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

(단위 : %)

순위	2015	2017	2019	2021
1	말레이시아 (27.9)	말레이시아 (28.9)	말레이시아 (35.8)	말레이시아 (33.2)
2	중국 (17.6)	중국 (17.9)	대만 (11.2)	대만 (13.6)
3	대만 (11.6)	대만 (10.2)	중국 (8.9)	한국 (12.4)
4	한국 (7.2)	한국 (7.8)	한국 (8.6)	베트남 (7.1)
5	일본 (6.3)	일본 (6.2)	베트남 (6.7)	중국 (5.6)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주요국 점유율 추이〉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2) 통신기기

- 중국이 압도적 1위인 가운데, 한국의 점유율은 무선통신기기 해외생산 확대에 점차 하락
 - 주요국 스마트폰 제조사의 생산기지가 중국→베트남으로 옮겨감에 따라 중국 점유율 하락, 베트남 상승
 - 다만, 미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 1·2위 브랜드 애플(50%) 및 삼성전자(24%)의 생산거점이 여전히 중국에 있어, 미·중 분쟁에도 불구하고 타 국가로의 수입대체가 빠르지 않음(Counterpoint, 2022.Q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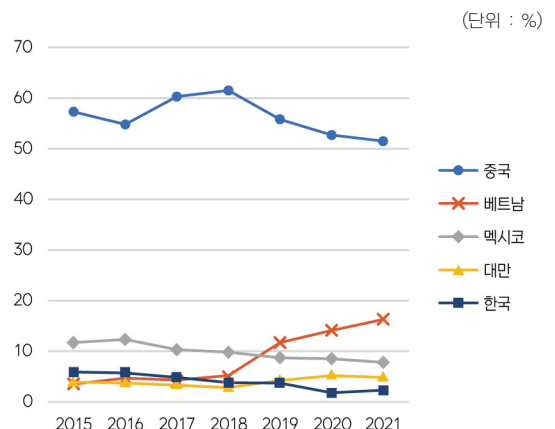
〈미국 통신기기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

(단위 : %)

순위	2015	2017	2019	2021
1	중국 (57.3)	중국 (60.3)	중국 (55.8)	중국 (51.5)
2	멕시코 (11.7)	멕시코 (10.3)	베트남 (11.7)	베트남 (16.3)
3	한국 (5.9)	한국 (4.8)	멕시코 (8.7)	멕시코 (7.8)
4	말레이시아 (4.9)	말레이시아 (4.5)	대만 (4.2)	대만 (4.8)
5	대만 (3.9)	베트남 (4.3)	한국 (3.7)	태국 (3.5)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주요국 점유율 추이〉



자료 : UN Comtrade, IMF, K-Stat

IV • 결론 및 시사점

- **세계교역에서 하이테크 품목의 교역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하이테크 품목이 세계교역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전세계 교역액 중 하이테크 비중 : 15.5%(11)→20.5%(20)
 - 지난 10년간(10~20) 세계수입액 연평균증가율 : (하이테크) 3.4% vs. (非하이테크) 1.0%

- **한국은 하이테크 수출이 총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수출 증가율도 여타품목에 비해 크게 높아 하이테크 수출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0년간(11~21) 수출액 연평균증가율 : (하이테크) 4.4% vs. (非하이테크) 0.3%
 - 다만 특정 수출대상국(중국, 36.3%)과 특정 수출품목(전자통신기기*, 78.3%)에 편향되어 있음(21 기준)
 - * (전자통신기기 내 세부품목 수출비중, '21년) 반도체 58.8%, 통신기기 15.8%

- **중국은 세계 최대 하이테크 수입국이자 한국의 최대 하이테크 수출대상국으로, 한국 수출 구조와의 유사성, 지리적 근접성 등으로 향후에도 중요한 교역파트너가 될 전망**

 -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만과의 점유율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는 미·중 분쟁에 따른 중국의 대만 공급망 연계 강화로 풀이되며,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 해당 기간 對中 반도체 수출액은 증가세 시현(60억불(15) → 84억불(18) → 90억불(21))

- **미국은 세계 2위 하이테크 수입시장으로, 2018년 본격화된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 점유율 하락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기회요인이 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점유율 하락(38.9%→29.8%)으로 생긴 공백을 기회로 활용하여 반도체, 컴퓨터, 과학기기 등 한국 주력품목의 점유율 확대를 꾀할 필요 있음

- **한국의 하이테크 주력품목 '반도체'는 향후에도 높은 성장세로 한국수출 견인 기대**

 - 반도체는 세계 하이테크 교역의 30.9% 비중을 차지하고, 연평균 5.5%로 성장하는 하이테크 핵심품목으로, 미래에도 4차 산업혁명 흐름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전망
 - 다만 한국은 특정 부문(메모리반도체) 및 특정 공정(파운드리)에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향후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팹리스(설계), 후공정(패키징·테스트) 등 시스템반도체 전·후방 공정에서의 역량도 강화 필요

- ◎ **주력품목 외에 의약품, 항공우주 등 고속성장 중인 하이테크 품목을 차세대 수출먹거리로 육성 필요**
 -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의약품, 항공우주, 전기기기 수입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바이오, 로봇,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규 수출동력을 확보하여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구조의 다변화 필요

- ◎ **반도체 등 기존 주력품목의 기술격차 확대, 의약품·항공우주 등 신성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완화·인재양성 및 기업의 연구개발·인프라 투자가 절실**
 - (정부) 기업의 투자 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계 촉진 필요
 - * 차세대반도체 등 5대 신산업에서 향후 10년간 4.4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산업부, '21.3월)
 - (기업) R&D 비중이 높은 하이테크 품목 특성상 부단한 연구개발이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므로, 연구개발 역량 확대 및 이를 제조로 연결시켜줄 인프라 투자 필요
 - * 삼성전자 파운드리 R&D 인력(2만 명) vs. 대만 TSMC 파운드리 R&D 인력(6만 명)

V • 부록

● 하이테크 품목 분류 기준

- 본 보고서의 하이테크 품목 분류는 OECD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SITC Rev.4 분류를 따르며, 각 분류에 해당하는 SITC Rev.4 코드를 HS Code 6단위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

* technical products of which the manufacturing involves a high intensity of R&D

- 반도체 및 통신기기(전자통신기기 하위)는 다음 SITC 코드에 의거해 분류

- 반도체 : 776.3, 776.4, 898.46
- 통신기기 : (764-764.93-764.99)

품목명	품목코드	세부품목 개요
항공우주 Aerospace	(714-714.89-714.99)	Aeroplane motors, excluding 714.89 and 714.99
	792.1	Helicopters
	792.2+792.3+792.4	Aeroplanes and other aircraft, mechanically-propelled (other than helicopters)
	792.5	Spacecraft (including satellites) and spacecraft launch vehicles
	792.91	Propellers and rotors and parts thereof
	792.93	Undercarriages and parts thereof
컴퓨터·사무기기 Computers- Office machines	874.11	Direction finding compasses; other navigational instruments and appliances
	751.94	Multifunction office machines, capable of connecting to a computer or a network
	751.95	Other office machines, capable of connecting to computer or a network
	752	Computers
전자통신기기 Electronics-tele communications	759.97	Parts and accessories of group 752
	763.31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operated by coins, bank cards, etc
	763.8	Video apparatus
	(764-764.93-764.99)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excluding 764.93 and 764.99
	772.2	Printed circuits
	772.61	Electrical boards and consoles < 1000V
	773.18	Optical fibre cables
	776.25	Microwave tubes
	776.27	Other valves and tubes
	776.3	Semiconductor devices
	776.4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776.8	Piezoelectric crystals
	898.44	Optical media
898.46	Semiconductor media	
의약품 Pharmacy	541.3	Antibiotics
	541.5	Hormones and their derivatives
	541.6	Glycosides, glands, antisera, vaccines
	542.1	Medicaments containing antibiotics or derivatives thereof
	542.2	Medicaments containing hormones or other products of subgroup 541.5

품목명	품목코드	세부품목 개요
과학기기 Scientific instruments	774	Electrodiagnostic apparatus for medicine or surgery and radiological apparatus
	871	Opt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872.11	Dental drill engines
	(874-874.11-874.2)	Measuring instruments and apparatus, excluding 874.11, 874.2
	881.11	Photographic cameras
	881.21	Cinematographic cameras
	884.11	Contact lenses
	884.19 (899.6-899.65-899.69)	Optical fibre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773.1 Orthopaedic appliances, excluding 899.65, 899.69
전기기기 Electrical machinery	(778.6-778.61 -778.66-778.69)	Electrical capacitors, fixed, variable or adjustable, excluding 778.61, 778.66, 778.69
	778.7	Electrical machine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778.84	Electric sound or visual signalling apparatus
화학품 Chemistry	522.22	Selenium, tellurium, phosphorus, arsenic and boron
	522.23	Silicon
	522.29	Calcium, strontium and barium
	522.69	Other inorganic bases
	525	Radioactive materials
	531	Synthetic organic colouring matter and colour lakes
	574.33	Polyethylene terephthalate
	591	Insecticides, disinfectants
비전기기기 Non-electrical machinery	714.89	Other gas turbines
	714.99	Part of gas turbines
	718.7	Nuclear reactors and parts thereof, fuel elements, etc
	728.47	Machinery and apparatus for isotopic separation
	731.1	Machine-tools working by laser or other light or photon beam, etc
	731.31	Horizontal lathes, numerically controlled
	731.35	Other lathes, numerically controlled
	731.42	Other drilling machines, numerically controlled
	731.44	Other boring-milling machines, numerically controlled
	731.51	Milling machines, knee-type, numerically controlled
	731.53	Other milling machines, numerically controlled
	731.61	Flat-surface grinding machines, numerically controlled
	731.63	Other grinding machines, numerically controlled
	731.65	Sharpening machines, numerically controlled
	733.12	Bending, folding, straightening or flattening machines, numerically controlled
	733.14	Shearing machines, numerically controlled
	733.16	Punching machines, numerically controlled
	735.9	Parts and accessories of 731 and 733
737.33	Machines and apparatus for resistance welding of metal, fully or partly automatic	
737.35	Machines and apparatus for arc welding of metal, fully or partly automatic	
무기류 Armament	891	Arms and ammunition

〈2022년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Brief 발간 현황〉

발간 호수	보고서 제목	작성자
2022.01.05 No.1	CES 2022를 통해 본 코로나 공존시대 혁신 트렌드	박가현
2022.02.18 No.2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현황 및 우리기업 영향	김꽃별, 조의윤
2022.02.28 No.3	중국의 귀차오(애국소비) 열풍과 우리 소비자 기업의 대응전략	편명선
2022.03.24 No.4	해외바이어의 한국 국가브랜드 및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 조사	김문선, 박가현
2022.05.03 No.5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우리 기업의 대응현황	박가현
2022.05.06 No.6	최근 엔화 약세의 우리 수출 영향	조의윤
2022.05.17 No.7	우리 수출기업의 친환경 소비트렌드 대응현황과 시사점	임지훈
2022.05.19 No.8	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강내영, 양지원
2022.05.30 No.9	최근 무역수지 적자 평가 및 전망	홍지상, 김꽃별
2022.06.08 No.10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방안	김아린
2022.06.30 No.11	브렉시트 이후 1년, 영국의 대외교역과 시사점	강상지
2022.07.05 No.12	주요국의 실버시장 현황과 우리기업에의 시사점	김문선
2022.07.22 No.13	미·중 하이테크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수출 동향 및 시사점	김민우